

이재상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박사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특강

- 형법 과목의 선택형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최적화 되도록 구성
- 「핵심 요약」으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강의
- 교재에 있는 최신 판례 중 중요한 것 위주로 3회 분량으로 적절하게 나누어서 강의 진행

일 정

7. 28(월) ~ 7. 29(화) / 오전, 오후 강의 / 월, 화 / 총 3회

[강의 시간]

- 7. 28(월) 10:00 ~ 13:30, 14:30 ~ 18:00

- 7. 29(화) 14:00 ~ 17:30

교 재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2025판, 윌비스 판)

변호사시험 대비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형법 최신 3개년 판례 특강****강의 특징**◎ **교재소개**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 ① 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②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③ 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 사례형 문제에 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 ④ 장문의 판결문을 그 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 「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험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특강

「핵심 요약」 예시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2]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아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경우, 매장 주인 B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A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권능 내지 지위에 기초하여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에게 반지갑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22.12.29. 2022도12494).

형3 기망형 法院2024 Case

핵심요약

-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함.
- ②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
- ③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함.
- ④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됨.

□ A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받아 “내 것이 맞다.” 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경우 재산처분권자인 매장주인 B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